

광주FC 이순민 “시즌 끝내고 싶지 않아...더 높이 오를 것”



이순민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다”며 광주FC의 이순민이 웃었다.

올 시즌 광주FC는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압도적인 질주로 K리그2 우승 기록을 새로 작성한 광주는 올 시즌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올려보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주로 정규라운드 3위를 차지했고, 전구단 상대 승리도 만들었다.

선수들은 묵묵히 시즌을 달리면서 매 경기 성장세를 보였고 광주의 오늘이 만들어졌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 보인 선수들, 이순민도 올 시즌 가장 빛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시즌 K리그2 베스트 11로 단상에 올랐던 이순민은 “17년에 입단해 데뷔하는 데 4년 걸렸고, 5년 만에 데뷔골을 넣었다. 올해 6년째인데 좋은 상받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특별한 꿈을 꾸고 이루고 싶었다. 성실히 꾸준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고 ‘꾸준함’의 미학을 이야기했다.

이순민은 꾸준함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는 더 큰 선수가 됐다.

악바리 근성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를 굳힌 이순민은 지난 7월 ‘울스타’에 선정돼 아틀레티코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 나섰다. 첫 울스타 무대에 오른 그는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어 8월에는 클럽스만호에 승선했고, 9월 진행

악바리 근성과 꾸준함의 미학
국내 경험하며 시야도 달라져
올해 광주 축구 역사 새로 써
아시아챔스리그 무대 정조준

된 웨일스와의 친선경기에 교체 멤버로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순민은 10월에도 다시 한번 클럽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으면서 경험을 더했다.

3월 1일 리그가 개막한 만큼 지칠 때도 됐지만 이순민은 남은 경기가 줄어드는 게 아쉽다.

이순민은 “마음 같아서는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다. 더 하고 싶다.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설레고 재미있다”고 이야기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광주의 힘’이 지지않은 이순민의 원동력이다.

이순민은 “진짜 우리 팀만큼 열심히 하는 팀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만큼 준비 잘하고, 간절한 팀이 없다. 팀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도 없다. 이 팀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내 축구 인생에 큰 복이고 영광이다”고 광주를 이야기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순민, 이순민이 있어 빛나는 광주. 이순민은 올 시즌 경험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에너지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순민은 “대표팀 등 경험을 하면서 보는 시야도

달라졌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다. 그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다”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축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팀에 좋은 기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대표팀에 가서 뭔가를 배웠다고 보다는 느꼈다는 게 맞을 것 같다. 내가 느낀 것들을 행동으로 하면서 후배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며 “말도 하면 잔소리 밖에 안된다.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한 경기 한 경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 붓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좋은 기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즌이 끝나는 게 아쉽지만 이순민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웃겠다는 각오다.

이순민은 “시즌을 끝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서 남은 경기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야 할 것들과 우리가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다.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며 “과일날라온듯 첫 경기부터 1위 울산과의 경기였는데 오랜만에 선발로 댄 (김)승우, (김)경재 형, (신)창무 형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팀이 마지막에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2023시즌 결승선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우선 지명 선수, 광주 11명·전남 9명

프로축구연맹 명단 발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21개 구단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 158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았고, 프로에 직행하는 선수는 13명이다.

K리그1에서는 12개 전 구단이 총 99명을 선택했다. 울산현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FC가 금호고 강찬술·김민석·김민준·김우진·주우재·박강영·박민국·백승진·송지원·신찬결·조현동 등 11명을 우선지명했다.

수원FC(10명), FC서울·수원삼성(이상 9명), 대구FC·포항스틸러스(이상 8명), 강원FC·인천유나이티드·전북현대·제주유나이티드(이상 7명), 대전하나시티즌(4명)이 뒤를 이었다.

K리그2에서는 김포FC, FC안양, 천안시티FC, 충북청주FC를 제외한 9개 팀이 총 59명을 우선지명했다.

서울이랜드가 가장 많은 10명을 선택했다. 이어

전남드래곤즈와 부천FC(이상 9명), 부산아이파크(8명), 성남FC(6명), 경남FC·안산그리너스·충남아산(이상 5명), 김천상무(2명)순이었다.

전남은 광양제철고의 강현수·김노을·김현석·나영훈·이상재·이윤형·정태인·지우진·김준 등 9명을 지명했다.

우선지명을 받은 158명 중 이미 구단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강민성·김도윤·안지우·이재훈(이상 수원FC), 공시현(전북)과 2023 GROUND.N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정성민(수원삼성) 등 13명이 프로로 직행한다. K리그1 11명, K리그2 2명이다.

한편 K리그 각 구단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신인선수를 선발한다.

‘우선지명’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지명의 효력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이며(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이 없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남부대 수영, MBC에서 ‘7개 금빛 물살’

수구 등 은메달 3개도 수확

남부대 수영·수구팀이 2023 MBC배 전국수영대회에서 7개의 금빛 물살을 가르는 등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남부대 수영팀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대전 용문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강준민(3년)과 김동혁(2년), 권선우(2년), 민기현(2년)이 2관왕에 올랐다.

강준민은 남대부 배영 200m 결승에서 2분16초4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배영 100m에서도 1분01초73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권선우는 남대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4초08의 기록으로, 김동혁이 남대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2분01초13 기록으로, 민기현이 접영 50m 결

승에서 24초81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선우·김동혁·민기현·임주영(1년)은 남대부 계영 400m 결승에서 54초21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준민(3년)은 여대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7초79로 김규빈(서원대·29초65)을 따돌리고 1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지훈(3년)은 남대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4초57의 기록으로 권선우에 이어 은메달을, 임주영은 평영 50m에서 32초02로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남부대 남자수구팀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3개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우승을 가린 이번 대회에서 남부대는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인 경기도청과의 첫 경기에서 5-23으로 졌으나 인천 스타로드와 두 번째 경기에서는 23-5로 이기며 1승 1패를 기록, 경기도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눈빛은 ‘10점 만점’ 2일 칠레 산티아고 오헝기스 파크에서 열린 2023 팬아메리칸게임 리듬체조 결승에서 브라질의 바비라 도밍고스가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창 등 투수 4명과 KIA, 재계약 않기로

정명원 투수 코치와도 결별



고영창

KIA 타이거즈가 고영창, 남하준, 송후섭, 박일훈 등 4명의 투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영창은 2019시즌 55경기에 나와 3.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투심’으로 눈길을 끌며 KIA에서 156경기에 출전해 볼펜에서 힘을 보탤다. 올 시즌에는 1군 콜업을 받지 못하면서 기록을 더하지 못했다.

KIA는 또 투수 나용기, 포수 배현호, 내야수 김용완·박승훈, 외야수 이종석에 대해서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육성선수 탈소를 요청하는 등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섰다.

시즌 중반 잔류군으로 내려갔던 정명원 투수 코치와도 결별했다.

KIA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과 불펜진 붕괴 등 마운드 위기가 이어지자 코치진 개편을 단행해 정명원 코치와 서재용 코치의 보직을 맞바꿨다.

시즌이 끝난 뒤에도 KIA는 ‘마운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재용, 박정철 투수 코치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앵그리 애니
- 4관 톡 투 미
- 5관 소년들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키리에의 노래, 용감한 시민, 시물런트
- 7관 싸네커블 30일
- 8관 싸네커블 소년들, 용감한 시민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실로이스츠 & 이안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이션'

일시 : 2023-11-12(일)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